

광주시, 물 아껴쓰라 하더니 수돗물 도로에 '칼칼' 쏟았다

남구 덕남정수장 밸브 고장
서·남, 북·광산구 일부 '단수'
어설픈 상수도 행정에 '분통'



12일 광주 남구 행암동 덕남정수장 정수지 유출밸브의 고장으로 수돗물이 도로로 흘러내리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휴일인 12일 광주지역에 매일 수돗물 26만여t을 정수·공급하는 용연정수장 시설이 고장 나는 바람에 광주 서구·남구 전역과 북구와 광산구 일부 지역 등 4개 구에 걸쳐 수돗물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았다. 특히 이 과정에 막대한 양의 수돗물이 홍수가 난 것처럼 도로 등으로 넘쳐 쏟아졌다.

시민들은 단수에 따른 불편도 불편이지만, 역대급 가뭄으로 대대적인 절수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설 점검 미흡 등으로 식수 낭비사고를 자초한 광주시의 어설픈 상수도 행정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관련기사 6면>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이날 새벽 3시 30분께 광주 남구 덕남정수장에서 정수한 물을 배수지로 보내는 정수지 유출 밸브에 이상이 생긴 것을 확인하고 조치에 들어갔다. 광주시는 이날 오후 시 재난대책회의실에서 강기정 시장 주재로 상수도 사고수습 비상대책회의를 갖고, 정수시설 고장 대응 및 단수·탁수 대책 등을 논의했다.

취수장에서 공급된 물은 약품 처리 등 과정을 거쳐 정수지에 모였다가 배수지를 통해 각 가정으로 보내지는데, 이날 덕남정수지에서 배수지로 물을 보내는 밸브가 열리지 않으면서 물이 공급되지 않은 것으로 광주시는 분석하고 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긴급 대책으로 이날 오후 1시부터 정수지로부터 물을 공급받지 못한 배수지 수위 저하에 따라 광주 서·남구, 광산구·북구 일부 등 4개 지역을 단수 조치했다. 반면 배수지로 물을 보내지 못한 덕남정수장 주변은 이날 오전 9시께부터 오후 6시20분까지 수돗물이 넘쳐 흐르면서, 인근 도로 등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

물이 넘치는 것을 막으려면 취수장에서 정수장으로 들어오는 양을 줄여야 하지만 한꺼번에 많은 유입량을 줄이면 주암호 도수관로에 무리를 줘, 관로가 터질 수 있는 탓에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이었

다. 상수도사업본부는 당초 26만여t이었던 착수량을 단계적으로 줄여 오전 10시 40분 기준 9.4만t으로 감산 조치했다.

광주시는 일단 이날 사고 원인으로 30년 가까이 된 시설 노후화 등으로 추정하는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날 새벽 3시 30분께 전자동으로 밸브를 여닫는 통신망에 이상이 생겨 복구 작업을 벌였는데, 이 과정에서 메인 밸브가 닫힌 뒤 열리지 않았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이후 수동으로 밸브를 열어보려 했으나 이마저도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배수지 수위 저하에 따라 단수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오전 11시 42분께 시민에게 안전 안내 문자를 보내고 단수를 예고했다.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일단 밸브를 여닫는 장치인 '기어박스(Gear Box)'를 철거하는 임시조치를 통해 배수지에 우선 물이 공급하는 방법 등을 통해 이날 오후 6시30분 복구를 완료, 13일 새벽부터 정상급수를 실시했다.

한편 1994년과 1996년 1, 2차에 걸쳐 구축된 덕남정수장은 정수시설 부지면적만 18만 1200㎡ 규모이며, 일 생산규모는 44만 톤으로 광주지역 서구·남구, 북구와 광산구 일부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다. 반면 광주 동구와 북구, 광산구 일부지역은 덕남정수장이 아닌 용연정수장에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는 탓에 단수 피해를 보지 않았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北 장사정포 경도 파괴' 신형 전술지대지유도무기 개발

유사시 북한 장사정포 경도 진지를 타격할 전술 지대지유도무기(KTSSM)의 성능을 높인 신형 무기체계 개발이 본격화한다.

12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군은 이르면 내달 'KTSSM-Ⅱ'의 체계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해 사업 추진 일정을 정한 뒤 체계개발 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KTSSM은 일명 '장사정포 칼라'로 불린다. KTSSM-Ⅱ는 고정 진지에서 운용하는 KTSSM-Ⅰ

과 달리 K-239 '천무' 다연장로켓(MLRS)의 이동식 발사대(TEL)에서 운용해 기동성과 생존 가능성이 더 뛰어나다. 또 KTSSM-Ⅰ의 경우 400mm 구경에 사거리 180km인데, 군은 KTSSM-Ⅱ의 구경을 더 키우고 사거리도 늘릴 계획으로 알려졌다. 300km 이상의 사거리가 예상되는데, 군사분계선(MDL) 인근에서 압록강 인근까지 이르는 거리다. 적지 중심까지 타격할 수 있는 것이다.

/연합뉴스

알립니다

호남의 리더
아하!
광주일보
아카데미



김상욱 교수

◆ 2023년 1학기 주요 강사진 ◆



이은결 미술사 김한민 영화감독 권일용 프로파일러 양정무 교수 서경석 MC

교수들의 명강연 ... 지역 최고 인적 네트워크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제11기 원우 모집

광주일보가 주최하는 고품격 아카데미에 광주·전남·전북 지역 각계 리더들을 모십니다.

광주일보는 3월부터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육 등 각 분야 유력인사들이 참여하는 1년 과정의 '제11기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를 개설합니다.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국내 최고 전문가들을 초빙해 수준 높은 강의와 함께 각종 공연 등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강연과 토론을 통해 국가와 지역사회 주요 영역의 시대적 과제와 해결책을 집중 탐구하는 최고급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창간 71주년이라는 호남 최고 전통에 빛나는 광주일보 브랜드 가치와 영향력에 걸맞게 수강생 여러분이 지역사회 최상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일보가 평생 가족으로 모시는 교육과 교류의 장에 지역 리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모집 인원 : 00명
- 지원 자격 : 기업 경영진 및 임원, 국회의원·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정부기관 단체장 및 고위관리자, 사회단체장, 법조·의료·교육·문화·예술·체육계 등 각 분야 전문가
- 교육 기간 : 3월 ~ 11월
- 강의 시간 : 매주 화요일 저녁 7시-8시30분 (호텔 뷔페 식사 제공)
- 원서 교부 및 접수 : 2월 17일까지
- 합격자 발표 및 등록 : 서류전형 후 개별통보
- 수강료 : 550만원 (부가세 포함)
- 문의 : 광주일보 편집국 062-220-0639

光州日報社

사랑과 감사의 69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3]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NEW
IOPE
RETINOL EXPERT
RETINOL 0.1%

2weeks
고함양 고강도 레티놀 분기당
필자 주름 용량 단 2주만에 개선
IOPE LAB

슈퍼레티놀 단 2주만에 주름잡다

| 아이오페 레티놀 엑스퍼트 0.1% |

주름을 위한 당신의 노력을, 얼마나 효과가 있었나요?
이제, 주름보다 강한 슈퍼레티놀로
확실한 주름 개선 효과를 느껴보세요

레티놀은 아이오페

IOPE